

# 한국 의류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및 인용된 참고문헌 분석

성 화 경 · 이 옥 희\* · 유 혜 경\*\*

고려대학교 가정교육학과, \*동국대학교 가정교육학과, \*\*시립인천대학교 의생활학과

## Analysis of Articles and Citations in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Hwakyung Seong · Ockhee Lee\* · Haekyung Yu\*\*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University of Incheon

(1994. 00. 00 접수)

### Abstract

There has been a large increase in research interests in clothing and textiles area as reflected in increase of memberships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and the number of issues of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rticles published in the JKSTC. Subject areas, funding source, length of article, and authors were examined for all articles published from 1977 to 1992. References were examined for the articles published in five selected years. The results showed that papers in textiles and sociopsychological areas accounted for approximately 40% of all articles, while the number of articles in fashion marketing has increased significantly in recent years. Professional journals were quoted most often followed by books. Importance of master's thesis of PhD dissertation was a unique phenomenon appeared in the JKSTC. The JKSTC was the most often quoted journal, even though wide variety of journals were used in different subject areas. Some suggestions to improve the JKSTC and research in clothing and textiles area are mad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 I. 서 론

1929년 처음 서구 개념의 가정학 도입과 함께 시작된 의류학은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와 교육 연구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많은 변신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정

찬진외, 1991). 근래에는 대학 신설과 의류학 관련 학과의 증가에 따라 의류학분야의 전문가와 학자들의 수가 증가되고 의류학회의 회원수도 개인회원 924명 단체회원 85개 단체로 증가하는 등 눈에 띄는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의류학회에서 발행하는 의류학회지는 우리나라의 의류학을 대표하는 학술지로, 창간된 1977년부

터 84년까지는 연 2회씩, 84년부터 89년까지는 연 3회씩, 그후 1993년까지 연 4회씩, 그리고 1994년부터는 연 6회씩 발간되고 있다.

의류학이 다른 일부 학문과는 달리 거의 전적으로 교육기관에 연구를 의존하고 있는 상태임을 감안할 때, 최근 대학에서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수들의 연구실적 심사를 강화하려는 추세는 의류학 전반과 의류학회지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시점에서 의류학을 대표하는 학술지인 의류학회지에 실린 논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의류학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 의류학 학문의 성격, 연구 방법 및 영역을 고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분석하는 연구는 여러 다른 학문 분야에서도 행하여져 왔으며(예를 들어, Cox의 연구(1977), Leong의 연구(1989)), 의류학 분야에서도 선행연구를 찾아 볼 수 있다. Montgomery와 Ritchey (1975)는 1971년부터 1973년 사이에 발간된 38개의 학술지에 발표된 가정학 관계 논문들의 논문 주제영역을 살펴보고, Goldsmith(1983)도 미국 가정학회의 학술지인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에 게재된 논문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들에서 의류학은 가정학분야의 하위 주제영역으로 분류되었다. Goldsmith는 논문의 주제영역외에도 저자의 성별, 소속, 연구지원금 출처, 참고문헌의 종류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Chowdhary와 Meacham (1983-84)은 Journal of Home Economics (1911-1980)와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972-1980)에 실린 의류학 논문들의 주제 영역을 나누어 고찰하였다. 1911년부터 1980년 사이 전체 가정학 논문중에서 의류학논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8.9%에서 15.8%로 증가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복식 사회심리 분야의 논문을 깊이있게 분석한 연구로는 Oliver와 Mahoney (1991)의 연구가 있는데, 그들은 1982년부터 1989년 사이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에 게재된 논문들의 주제 영역, 연구지원금 출처, 논문종류, 참고문헌의 종류등을 분석하였다. 논문의 성격에 따라 이론이나 이론적 모형을 검증하는 연구를 실증적 연구, 이론, 개념, 모형을 제시하는 연구를 이론 연구, 그리고 연구나 교육 과정 등에 관한 방향제시나 의견을 발표한 논문을 논설적인 논문으로 나누었을 때, 82%의 논문이 실증

적인 연구였고 논설적인(editorial) 논문은 10%, 이론 연구(theory development)는 8%는 차지하였다. Apparel Design and Manufacturing, Consumer Issues, Cultural/Historical, Educational, Merchandising, Social/Psychological, Textile Science로 나뉘어진 주제 영역중에서는 Social/Psychological 분야의 논문이 26%, Consumer관련 분야의 논문이 20%로 가장 많은 편수가 게재되었으며 Textile Science, Cultural/Historical, Educational 분야의 논문이 그 다음 많이 게재 되었음이 나타났다. Apparel Design & Manufacturing 분야의 논문은 후반기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참고문헌의 종류를 살펴 보았을 때 학술지(journal)가 46%, 저서(book)가 27%를 차지하였다. 이는 1967년, 1971년, 1976년에 발행된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와 Journal of Marketing에 게재된 논문을 분석한 Goldman (1979)의 연구에서는 참고문헌의 51%가 학술지, 25%가 저서임을 비교해 볼때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에서는 상대적으로 저서가 많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Goldman은 또한 얼마나 오래된 참고문헌을 인용하는 가를 조사하여서, 학문의 역동성을 살폈다. 그는 인용하는 문헌의 나이가 감소하는 데는 두가지 요인이 있다고 하였다. 첫번째 요인은 발표되는 연구 논문의 수가 근래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다른 요인은 최신효과(immediate effect) 또는 첨단효과(frontier effect)라고 불리우는 것으로 연구의 방향이 새로운 문제나 관심을 따라 간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학문은 역동적이고 급변하여, 학자들간의 의사 소통이 중요해진다고 하였다. 또한 인문과학과 같이 오래된 문헌이 많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연구 주제가 급변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보았다.

우리나라에서는 문수재와 이기열(1984)이 대한가정학회지의 1959년 창간호부터 1983년까지 게재된 논문을 7분야로 분류하였다. 정찬진의(1991)는 대한가정학회지(1959-1990), 한국의류학회지(1977-1990), 복식지(1979-1989)에 실린 의류학관련 논문들의 연구주제를 의복구성학, 피복과학, 복식의장학, 복식사, 의상사회심리, 의류상품학, 기타로 분류하였다. 학회지별로는 창간이래 한국의류학회지의 중요성이 팽목할만 하여, 1970-1985년에는 한국의류학회지에 발표된 논

문 편수가 대한가정학회지에 게재된 의류학연구논문 편수를 증가하였다. 연구 대상 기간중 연구 주제별로는 피복과학(피복재료, 피복정리, 피복위생)부분의 연구 논문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복식사 논문이 우세하였다. 복식사회심리학과 의류상품학의 논문은 의류학회지의 발간과 아울러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의류상품학분야 논문이 1980년대 후반에 많이 발표되었다.

이상에서의 선행연구에서 보여지듯이 우리나라 의류학계 연구논문에 관하여서는 연구 주제외에는 실증적으로 고찰된 것이 없어서 연구의 동향이나 학문의 성격등을 논의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의류학회지에 게재된 논문과 논문의 참고문헌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학문의 성격, 연구 방향, 연구방법, 타학문과의 연관관계등에 관하여 고찰함으로써 의류학 연구 수행에 도움이 되고, 의류학회지의 질적 향상에도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II. 연구방법

### 1. 자료의 수집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발간되고 있는 의류학 전문 학술지 중에서 한국의류학회지를 선정하여 1977년 창간호부터 1992년 16권 4호까지 44권에 발표되었던 논문을 자료로 하였다. 분석자료로 사용된 논문은 총 383편이었다.

### 2. 자료의 분석

#### 1) 의류학 영역의 분류

의류학의 영역을 분류하기 위해서 Oliver와 Mahoney(1991)의 연구, 정찬진의(1991)의 연구 그리고 현재 한국의류학회지의 체계 등을 고려해서 연구자들이 토론하여 결정하였다. 결정된 영역을 보면 피복재료학, 피복정리학, 의복위생학, 복식사회심리학, 의류상품학, 의복구성학, 복식의장학, 한국복식사, 서양복식사, 기타의 10개의 영역이다. 이 과정에서 복식미학과 동양복식사는 논문의 수가 적어 미학은 복식의장학에 동양복식사는 한국복식사에 포함시켰다. 연구 주제를 10개영역으로 구분하는 방법은 제목과 서론에 의했으며 주제가 복합적인 경우는 결론을 참고하여 지배적

인 분야에 포함시켰다.

#### 2) 자료의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두 단계를 거쳐 분석하였는데 우선 모든 논문에 대하여 연도, 분야, 저자, 논문의 분량, 연구지원금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두번째 단계에서는 의류학 분야 연구논문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기 위하여 참고문헌을 분석하였다. 시대적인 변화의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4단계로 구분하여 1970년대 후반(1978-1979), 1980년대 전반(1980-1984), 1980년대 후반(1985-1989년), 1990년대 초반(1990-1992년)으로 나누었고, 편집위원장에 따른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각지 다른 편집위원장이 재임하였던 연도인 1979년, 82년, 85년, 89년, 92년에 발간된 14편을 참고문헌 분석에 사용하였다. 참고문헌은 언어, 문헌의 종류, 그리고 문헌의 나이 등에 따라 분석하였다. 문헌의 나이는 참고문헌이 연구논문보다 얼마나 오래전에 발간되었는가를 나타내는 기표로, 참고문헌과 연구논문이 같은 해에 출판된 것은 나이가 0인 것으로 하였다. 두번이상 인용한 것은 한편으로 계산하였다. 외국의 학술지와와의 비교를 위하여 미국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에 게재된 40편의 논문에 이용된 978개의 참고문헌을 문헌의 나이별로 분석 비교하였다. 또한 타학문과도 비교하기 위해서 다른 학회지를 선택할 필요가 있었다. 문헌의 나이는 학문의 영역별로 차이가 있어서 자연과학분야는 최근의 참고문헌을 주로 사용하는 반면 인문과학 등은 참고문헌의 나이가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oldman, 1979). 따라서 자연과학의 성격이 강한 섬유공학회지나 사학 관련 학회지를 피하고, 다양한 성격의 영역을 포함하는 경영학 학회지를 선택하여 1992년도 한국경영학회지에 실린 22편의 논문에 인용된 748개 참고문헌을 분석하였다.

## III. 결과 및 내용 분석

### 1. 연도별 연구 분야의 분포

분석 자료로 사용된 383편의 논문중, 연도별 연구 분야의 분포 상태를 보면 <표 1>과 같다. 의류학회지의 연간 발간 횟수가 증가하여서, 논문 편수는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77-79년의 논문 편수는 총 40편으로 그 중 가장

〈표 1〉 연도별 연구 분야의 분포

연도	분야	피복 재료	피복 정리	의복 위생	복식 사회심리	의류 상품학	의복 구성학	복식 의장학	한국 복식사	서양 복식사	기타	합계
'77-'79 (%)		6 (15)	8 (20)	3 (7.5)	5 (12.5)	2 (5.0)	4 (10.0)	0 (0)	8 (20.0)	4 (10.0)	0 (0)	40 (100)
'80-'84 (%)		14 (19.2)	11 (15.1)	2 (2.7)	25 (34.2)	3 (4.1)	8 (11.0)	2 (2.7)	6 (8.2)	2 (2.7)	0 (0)	73 (100)
'85-'89 (%)		37 (24.0)	24 (15.6)	17 (11.0)	34 (22.1)	6 (3.9)	17 (11.0)	3 (1.9)	14 (9.1)	2 (1.3)	0 (0)	154 (100)
'90-'92 (%)		15 (12.9)	1 (0.9)	18 (15.5)	17 (14.7)	25 (21.6)	16 (13.8)	13 (11.2)	7 (6.0)	3 (2.6)	1 (0.9)	116 (100)
합계 (%)		72 (18.8)	44 (11.5)	40 (10.4)	81 (21.1)	36 (9.4)	45 (11.7)	18 (4.7)	35 (9.1)	11 (2.9)	1 (0.3)	383 (100)

활발하게 연구된 분야는 피복정리 분야와 한국복식사 분야로 각 8편씩 발표되었다.

1980-84년에는 복식사회심리분야의 논문 수가 특히 많이 증가되어서, 가장 많은 논문 편수가 발표되었다. 그러나, 1985-89년에는 상대적인 비중이 감소하였고, 같은 기간에 피복재료 논문이 가장 많이 발표되었으며, 피복위생분야의 논문편수가 괄목할만한 증가를 보였다.

1990-92년에는 의류 상품학 분야의 연구발표가 현저하게 증가되어서, 여러 분야 중 가장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복식의장학 논문 발표도 크게 증가하였다. 의복구성학과 의복위생 분야의 논문도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피복재료학과 피복정리 분야의 논문의 발표는 감소하였다.

연구 종류를 Oliver와 Mahoney (1991)의 연구에서와 같이 실증적 연구(empirical), 이론연구(theory development), 논설적인 연구(editorial)로 나누었을 때 연도와 상관없이 실증적 연구가 97%를 차지하여서, 거의 모든 연구가 실증적인 연구임을 보여주었다.

## 2. 연구지원금

연구지원금 분포 상황을 보면 1984년까지는 100% 자비로 연구를 수행했으나 1985-89년에는 91%, 1990-92년에는 78%만 자비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문교부, 교내, 학술진흥재단, 과학재단, 기업체로부터 연구비

를 지원 받아 연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3. 저 자

논문을 기고한 연구자는 총 588명<sup>1)</sup>이었는데, 94%가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재직자이거나 학생이어서, 의류학회지가 주로 교육기관의 연구지임을 나타내었다. 기고자의 이름으로 추정하였을 때 75%가 여성이었는데, 이 결과는 추정값이기는 하지만 여성기고자의 수가 남성기고자의 수보다 많은 것을 나타내었다.

1979년까지는 저지수가 한명인 1인 연구가 7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1980년 이후에는 1인 연구는 30%로 줄고 대신 2명의 공동 연구가 60% 수준에 달하여 두사람이 같이 연구한 논문이 많이 발표되었는데, 대부분의 2인 논문은 학위 논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4인 이상이 공동으로 연구한 논문은 전체 논문 중 6편으로 극히 적었다.

## 4. 논문의 분량

논문 분량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논문 1편당 쪽수를 먼저 연도별로 살펴보았다. 쪽수의 범위는 4쪽에서 22쪽까지 다양한데 83년까지보다 그 이후에 논문의

1) 한 연구자가 여러번 기고한 경우에 한명이 아니라 기고한 수만큼의 명수로 계산하였음.

〈표 2〉 연도별 논문의 분량

(빈도수)

연도	쪽수																						합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77	0	4	2	2	1	1	1															11	
78	0	1	2	4	5	2	3	1														18	
79	0	1	4	0	4	0			1					1								11	
80	0	0	2	0	3	2	1	1		2												7	
81	2	1	2	3	2	0	1	1		2												14	
82	0	0	3	2	3	2	1		3													14	
83	0	0	1	2	2	6	1						1									13	
84	0	1	2	7	0	4	3	2	4		2											25	
85	0	0	0	1	3	3	4	2	1	1	5		3	1	2							26	
86	0	0	1	4	7	7	3	5	1		1		1									30	
87	0	0	0	4	4	5	5	4	2		3	1					1	1				30	
88	0	0	1	2	5	3	6	5	4	2	2		1							1		32	
89	0	1	1	1	5	7	7	4	3	1	1	1	1		1	1			1			36	
90	0	0	2	4	2	1	3	3	6	7		1								1		29	
91	0	2	2	0	4	3	5	6	10	2	3	2								1		40	
92	0	0	2	5	3	4	3	7	4	7	8	2	1							1		47	
합	2	11	27	41	53	50	46	40	39	22	25	8	7	2	3	1	3	2	1			383	

쪽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낸다(표 2). 8-9쪽 분량의 논문이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며, 대체로 7-12쪽의 분량이다.

그리고 논문의 1편당 쪽수를 분야별로 살펴본 결과 대부분 9쪽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분야별 특징은 나타나지 않았다. 단지 피복재료와 피복정리 분야의 논문이 비교적 쪽수가 적은 편으로 9쪽 미만의 논문 수가 각각 49%, 69%를 차지하였다.

## 5. 참고 문헌의 특징

참고 문헌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서 문헌의 언어별, 종류별, 나이별, 분야별로 검토하였다. 서양복식시와 기타 분야 논문은 참고 문헌 분석을 위해서 정한 기간 중 그 숫자가 극히 적거나 없어서 참고 문헌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 1) 연도별 참고문헌의 나이

연도별 참고문헌의 나이를 보면 0년(저자가 논문기술한 해 출판된 문헌) 문헌부터 45년까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표 3). 총 참고문헌 2692편 중 10년 이내의 나이인 것은 42.5%, 그리고 11-20년 나이의 문

헌이 33.7%이고, 21-30년 나이가 13.8%였으며, 나머지 10.0%가 31-45년의 문헌들이었다. 전체적으로 비교적 신간 문헌을 많이 인용하고 있지만, 20년 이상된 문헌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1968년, 1971년, 1976년도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와 Journal of Marketing에 실린 참고문헌을 분석한 Goldman(1979)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0년 이내의 참고문헌이 75%, 20년 이내의 참고문헌이 14.6%, 그 이상인 4.2%였다. 분석한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는 할 수 없으나 Goldman이 발표한 나이 분포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92년도 논문의 참고문헌만을 살펴보면 10년 이내의 문헌이 57.5%, 11-20년의 문헌이 28.8%, 21-30년의 문헌이 8.4%였고, 31년 이상되는 문헌이 5.5%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최근에는 참고문헌의 나이 분포가 점차 작은 쪽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근래에 발표되는 논문일수록 최신의 문헌을 인용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타 학문과의 비교를 위해서 1992년도 한국경영학회지를 분석한 결과 10년 이내의 문헌의 52%, 10-20년

〈표 3〉 연도별 참고 문헌의 나이

연도 나이	79	82	85	89	92	합	누적독수	10년간의 백분율
0	1	1	0	0	8	10	10	
1	6	11	0	0	51	68	78	
2	7	8	2	0	56	73	151	
3	2	12	0	0	70	84	235	
4	14	21	2	4	89	130	365	
5	10	12	5	22	61	110	475	
6	5	9	7	41	70	132	607	
7	6	13	4	42	64	129	736	
8	3	16	17	52	63	151	887	
9	3	9	28	56	49	145	1032	
10	5	9	25	40	60	139	1171	43.5%
11	4	8	31	55	42	140	1311	
12	4	6	36	37	50	133	1444	
13	1	4	29	25	28	87	1531	
14	5	6	26	30	30	97	1628	
15	2	7	17	19	35	80	1708	
16	5	11	19	26	36	97	1805	
17	1	6	20	29	23	79	1884	
18	2	4	18	25	24	73	1957	
19	3	5	11	23	29	71	2028	
20	6	6	19	17	25	73	2101	33.7%
21	3	3	8	29	22	65	2166	
22	4	1	14	16	11	46	2212	
23	0	2	6	24	7	39	2251	
24	1	3	6	25	15	50	2301	
25	1	1	8	21	18	49	2350	
26~30	3	6	37	42	43	131	2481	13.8%
31~34	0	6	16	38	16	76	2557	
35~39	0	1	12	39	16	68	2625	
40~44	0	1	14	23	7	45	2670	
45~	1	6	33	25	22	87	2757	10.0%

※ 확인할 수 없는 문헌수 = 113

문헌이 32% 인용되었으며, 20-30년의 문헌이 10%, 30년나이 이상된 문헌이 5%로 대체로 비슷한 경향으로 보인다(표 4). 또 외국과의 비교를 위해서 미국에서 출판되는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1992년)에 게재된 논문의 참고 문헌 나이를 분석한 결과 총 978편의 문헌중 10년이내의 문헌의 인용이 42.4%, 11-20년의 문헌이 27.3%, 21-30년의 문헌이

12.7%, 31년 이상된 문헌이 17.6%로 비슷한 경향이라고 볼 수 있다(표 4). 1992년도에 게재된 논문만을 비교했을 때, 한국의류학회지에 실린 논문의 참고문헌들이 CTRJ의 논문 참고문헌보다 10년 내의 문헌들이 많았으며, 상대적으로 21년 이상된 문헌들의 비중이 작았다. 이는 최근들어 한국의류학회지에 게재된 복식사 논문수가 줄어들고, 의류상문학 분야의 논문 수가

〈표 4〉 한국의류학회지(1992)와 다른 학회지에 실린 참고문헌의 나이 비교

나이	한국경영학회지(1992)		CTRJ (1992)		한국의류학회지(1992)	
	문헌수	누계	문헌수	누계	문헌수	누계
0	3		3		8	
1	21		7		51	
2	41		21		56	
3	38		34		70	
4	45		61		89	
5	41		53		61	
6	37		57		70	
7	54		51		64	
8	40		60		63	
9	35		30		49	
10	41	396(52.9%)	38	415(42.4%)	60	641(51.2%)
11	42		46		42	
12	23		31		50	
13	30		29		28	
14	31		28		30	
15	23		24		35	
16	23		35		36	
17	22		22		23	
18	24		14		24	
19	4		24		29	
20	18	240(32.1%)	14	267(27.3%)	25	322(25.7%)
21	19		16		22	
22	11		27		11	
23	11		13		7	
24	8		11		15	
25	6		14		18	
26~30	20	75(10.0%)	43	124(12.7%)	43	116(9.3%)
31~34	13		23		16	
35~39	7		19		16	
40~44	5		14		7	
45이상	5		116	172(17.9%)	22	
모름	7	37(5.0%)			113	174(13.9%)
Total	748		978		1253	

증가된 것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위논문문의 인용이 증가된 데서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다.

## 2) 참고문헌의 언어별, 종류별, 분야별, 나이

참고 문헌의 언어별 분포는 영어로 된 문헌이 48.9%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다음이 국어(33.9%), 일어(15.6%),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어로 된 문

헌인 경우 나이의 중앙값이 8년, 영어 문헌인 경우 16년, 일어 문헌은 13년이어서, 예상했듯이 국어로 된 참고문헌이 외국어로 된 문헌보다 최근의 것들임을 알 수 있었다(표 5).

문헌의 종류별로 나이의 중앙값을 살펴보면(표 6) 학위논문이 8년으로 가장 작고, 저서와 학술지가 13년

<표 5> 언어별 문헌의 나이

언어별	나이(중앙값)
국어	8
영어	16
일어	13

<표 6> 문헌 종류별 문헌의 나이

문헌의 종류별	나이(중앙값)
저서	13
학술지	14
교내학술지	10
학회발표자료	10
학위논문	8
정부간행물	10
기타	10

과 14년으로 가장 큰 값이었다. 이는 근래에 국내에서 의류학 분야의 대학원이 많이 개설되어서 학위논문의 인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 학술지가 전문 학자사이의 최신 정보를 교환하는 창구임에도 불구하고 학술지 나이의 중앙값이 저서나 다른 문헌의 중앙값보다 큰 것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최신의 학술지를 다양하게 접하는 기회가 부족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분야별 문헌 나이의 분포 상황을 보면 의복구성학, 복식의장학, 의류상품학, 서양복식사 분야는 10년 이내의 참고문헌을 대체로 사용하여 특히 복식의장학이 가장 최근의 문헌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표 7>.

이에 비하여 피복정리, 피복재료, 복식사회심리, 의복위생, 한국복식사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오래된 문헌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참고 문헌의 종류

연도별로 사용한 참고문헌의 종류를 보면 <표 8>과 같다.

전체적으로 참고문헌으로는 학술지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다음은 저서, 학위 논문 순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정부간행물, 학회발표자료의 사용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학술지의 이용이 많은 것은 학문의 새로운 내용을 받아들여려는 경향으로 바람직하게 볼 수 있다. 그러나, CTRJ을 분석한 Oliver와 Mahoney(1991)의 연구 결과나 Journal of Marketing과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를 분석한 Goldman(1979)의 연구와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저서가 많이 인용되고 있으며, 특히 학위논문의 인용이 많은 것이 큰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언어별 참고문헌의 종류

<표 9>에서 보는 것과 같이 언어별 참고문헌을 보면

<표 7> 분야별 문헌의 나이

분야별	나이(중앙값)
피복재료	13
피복정리	16
의복위생	12
복식사회심리	14
의류상품학	9
의복구성학	9
복식의장학	5
한국복식사	13

<표 8> 참고 문헌의 종류

연도	79	82	85	89	92	합계(%)
저서	30(28.0%)	74(34.9%)	181(39.5%)	247(28.1%)	374(32.8%)	906(32.8)
학술지	71(66.4%)	89(42.0%)	178(38.9%)	428(56.8%)	458(40.2%)	1224(44.4)
학회발표자료	1(0.9%)	2(0.9%)	12(2.6%)	18(2.1%)	34(3.0%)	67(2.4)
교내학술지	0	10(4.7%)	11(2.4%)	22(2.5%)	22(1.9%)	65(2.4)
학위논문	2(1.9%)	28(13.2%)	51(11.1%)	86(9.8%)	170(14.9%)	337(12.2)
정부간행물	3(2.8%)	3(1.4%)	18(3.9%)	8(0.9%)	12(1.1%)	44(1.6)
기타	1(0.9%)	8(3.7%)	19(4.1%)	16(1.8%)	70(6.1%)	114(4.1)



〈표 9〉 언어별 참고 문헌의 종류

참고문헌 언어	저서	학술지	교내학술지	학회 발표자료	학위논문	정부간행물	기타	합계
국어	263	253	65	7	282	14	50	934
-> (%)	28.46	27.38	7.03	0.76	30.19	1.52	5.41	
1 (%)	29.03	20.07	100.0	22.58	83.68	31.82	43.86	
영어	513	687		36	55	13	44	1348
-> (%)	39.10	52.36		2.67	4.19	0.99	3.35	
1 (%)	56.62	55.86		53.7	16.82	2.27	38.60	
일어	85	284		24		17	20	430
-> (%)	19.50	66.05		5.50		3.90	4.58	
1 (%)	9.38	23.20		77.42		38.64	17.54	
번역	45							45
-> (%)	100.0							
1 (%)	4.97							
합계	906	1224	65	67	337	44	114	2757

〈표 10〉 분야별 참고 문헌의 종류

종류	저서	학술지	학회발표자료	학위논문	정부간행물	교내학술지	기타
피복재료 (%)	58(13.1)	331(74.9)	15(3.4)	12(2.7)	8(1.8)	5(1.1)	13(2.9)
피복정리 (%)	41(20.9)	133(67.9)	5(2.6)	8(4.1)	7(3.6)	0(0.0)	2(1.0)
의복위생 (%)	71(21.3)	189(56.6)	21(6.3)	23(6.9)	3(0.9)	13(3.9)	14(4.2)
복식사회심리 (%)	253(37.2)	249(36.)	8(1.2)	137(20.1)	4(0.6)	17(2.5)	12(1.8)
의류상복학 (%)	137(29.5)	197(42.5)	15(3.2)	92(19.8)	6(1.3)	5(1.1)	12(2.6)
의복구성학 (%)	82(39.6)	66(31.9)	1(0.5)	29(14.7)	12(5.8)	11(5.3)	6(5.4)
복식의장학 (%)	106(54.6)	25(12.9)	0(0.0)	22(11.3)	0(0.0)	1(0.5)	40(20.6)
한국복식사 (%)	138(68.3)	27(13.4)	2(1.0)	11(5.4)	3(1.5)	9(4.5)	12(5.9)

영문문헌을 가장 많이 쓰고 다음이 국문, 일문의 순이며 번역서는 극히 저조해서 원어로 된 문헌이 선호됨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의 종류를 분석하면 국어는 학위논문, 저서, 학술지 등 모든 종류의 문헌이 사용되고 있고, 영어의 경우 학술지가 가장 많고 다음이

저서, 학위논문의 순이다. 일문은 학술지가 많고 다음 저서의 순이다.

5) 분야별 참고 문헌의 종류

분야별 참고 문헌의 순위는 <표 10>에 나타내었다. 피복과학분야(피복정리, 피복위생, 피복재료)에서는

학술지를 주로 사용하였고, 복식의장학과 한국복식사, 의복구성 분야는 저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다.

복식사회심리 분야에서는 저서와 학술지를 거의 같이 사용하고 있으며 학위논문의 비중도 다른 분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의류상품학 분야도 저서와 학술지를 모두 많이 인용하고 있으며 학위논문도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6) 이용 빈도가 많은 학술지**

모든 분야를 통해서 이용된 빈도가 많은 학술지의 순위는, <표 11>와 같다. 모든 분야에 걸쳐 이용 빈도가 많은 순으로 5종을 선정하면 1) 한국의류학회지 2)

<표 11> 이용 빈도가 많은 학술지

순서	문헌명	횟수
1	한국 의류학회지	89
2	Textile Research Journal	82
3	일본 가정학회지	75
4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60
5	대한 가정학회지	58
6	일본 섬유 제품 소비 과학회지	57
7	Journal of Home Economics	45
8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37
9	한국 섬유 공학회지	30
10	일본 섬유 기계학회지	28

<표 12> 분야별 이용 빈도가 많은 학술지

분야	순서				
	1	2	3	4	5
피복재료(%)	TRJ(43)	한국섬유공학회지(30)	일본가정학회지(24)	일본섬유제품소비과학회지(24)	일본섬유기계학회지(24)
피복정리	TRJ(25)	일본섬소지(16)	J.A. Oil Chem(16)	일본油化學(15)	일본가정학회지(13)
의복위생	일본가정학회지(27)	ASHRAE trans(17)	J. Applied Physiology(16)	TRJ(14)	한국의류학회지(13)
복식사회심리	HERJ(36)	JHE(33)	대한가정학회지(28)	J. of Abn. Soc. Psy.(24)	한국의류학회지(23)
의류상품학	한국의류학회지(10)	JR(28)	HERJ(22)	CTRJ(18)	JM(16)
의복구성학	일본가정학회지(10)	일본섬소지(10)	JHE(7)	한국의류학회지(6)	대한가정학회지(5)
복식의장학	한국의류학회지(5)	대한가정학회지(5)	일본섬소지(5)	아파텔연구(2)	복식지(1)
한국복식사	대한가정학회지(3)	복식지(3)	일본가정학회지(1)	한국의류학회지(1)	일본의생활연구(1)
서양복식사	한국의류학회지(1)	복식지(1)	미학지(1)	일본미학지(1)	American Anthropologist

- a: 괄호안의 수는 빈도수임.
- b: 한국복식사의 경우 한번씩 인용된 학술지가 이외에도 다수 있음.
- TRJ: Textile Research Journal
- HERJ: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 JHE: Journal of Home Economics
- J.A. Oil Chem.: Journal of Applied Oil Chemistry
- J. of Abn. Soc. Psy.: Journal of Abnormal Social Psychology
- CTRJ: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 JM: Journal of Marketing
- JR: Journal of Retailing
- 일본섬소지 : 일본섬유제품소비과학회지

TRJ (Textile Research Journal) 3) 일본가정학회지  
4) HERJ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5)  
대한가정학회지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로 의류학 연구에서 한국의류학  
회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앞  
으로 의류학 전문학회지로서의 역할이 더욱 기대된다.

분야별로 참고문헌의 이용 빈도에 따른 순서를 보면  
<표 12>과 같다.

피복재료분야와 피복정리 분야 논문은 TRJ와 한국  
섬유공학회지, 일본섬유제품소비과학회지 등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이는 연구분야가 섬유공학과 관련이 많  
은 특성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복식사회심리분야는 HERJ나 JHE와 같은 영문학회  
지의 인용이 많은 편이었는데 이것은 복식사회심리학  
이 미국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피복위생학이나 의복구성분야에서는  
일본가정학회지를 가장 많이 인용하였고, 다음으로  
ASHREA trans와 일본섬유제품소비과학회지 등을  
많이 사용하였다.

의류상품학, 서양복식사, 복식의장학은 한국의류학  
회지를 가장 많이 인용하였다. 의류상품학인 경우는  
의류학회지 다음으로 자주 인용되는 학술지는 모두 영  
문 학술지였다.

분야별로 많이 인용된 참고 문헌들을 살펴보았을  
때, 각 분야의 특성에 따라 다른 학술지를 인용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분야의 다양성 만큼 문헌의 다양성도  
보여주었다.

#### IV. 결론 및 제언

의류학이 가정학의 한 분야에서 독립된 학문으로 발  
전하면서 연구 논문의 발표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근  
래 대학에서는 연구 실적의 심사를 강화하려는 추세여  
서 이는 학회지에도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의류학의 대표적 학술지인 한  
국의류학회지를 창간호(1977년)부터 16권 4호(1992  
년)까지, 44권에 발표된 논문을 총 383편을 자료로 해  
서 10개 영역으로 분류한 다음, 연도별, 분야별, 저자  
수, 논문의 분량, 연구지원금, 참고문헌의 특성 등을  
분석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해가 거듭할 수록 연구 논문 발표가 활발해지며 여

러 분야 중 복식사회심리분야와 의류상품학 분야의 연  
구가 현저하게 증가되고 있다.

2) 1990년 이전에는 거의 자비 연구였으나 그 이후 연  
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3) 저자는 2인 공동 연구가 60%에 달하는데 이는 대  
부분 학위논문인 것으로 사료되며, 논문의 분량은 7  
-12쪽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4) 참고문헌의 나이는 43%가 10년 이내의 문헌이며,  
타분야, 외국 학술잡지의 경우와 비슷한 경향이였다.  
그리고 문헌의 언어는 영어 문헌이 가장 많이 쓰이나,  
분야별로 차이가 있었다. 문헌의 종류는 학술지가 가  
장 많이 이용되고 있고 이용빈도가 가장 많은 학술지  
는 한국의류학회지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려한  
다.

1) 대학의 연구 업적 평가에서 1인 단독 연구가 높게  
평가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응용학문으로 실용성 있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공동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그  
러나 학위 논문의 형태만이 아니라 상호 보완 할 수  
있는 전공 교수들의 공동 연구를 늘려야 할 것이다.

2)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연구보조비에 의한 연구가  
증가되고는 있지만 상당히 부진하므로 앞으로 적극적  
참여로 보다 규모가 크고 산학 협동의 체제로 진입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3) 이론 연구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상태로 앞으로  
는 이론을 정립, 제시하는 노력도 있어야 하겠다.

4) 학위논문이 많이 인용되는 것이 의류학회지에 게재  
된 논문의 주요한 특징으로 나타났는데, 앞으로는 학  
위논문을 학술지에 많이 발표함으로써 연구자가 학위  
논문을 구해야 하는 어려운 대신 쉽게 접할 수 있는  
학술지를 참고 인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

5) 참고문헌의 분석에서 어려웠던 점은 연도, 출처,  
재인용 등의 기록이 불충분한 것이었다. 특히 재인용  
문헌을 정확히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따라  
서 앞으로는 엄격한 기록이 필요하겠고, 논문 사독에  
도 이를 반영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6) 앞으로 학회지 발표 논문의 전산화를 위해서 key  
word를 기록하도록 하는 제도를 제언한다.

## 참 고 문 헌

- 문수재, 이기열(1984). 한국 가정학의수가 미래발전을 위한 검토, 대한가정학회지, 22(3), 181-198
- 정찬진, 박신정, 황선진(1991), 한국 의류학 연구의 현황과 재조명 : 1959-1990. 한국의류학회지, 15(1), 28-37.
- Chowdhary, U. & Meacham, E. (1983-84). Changing focus of textiles and clothing within Home Economics: an analysis of two professional journal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2, 15-18.
- Cox, Miles W. (1977). Some changes in article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during a twenty-year period.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2, 241-4.
- Goldman, A. (1979). Publishing activity in marketing as an indicator of its structure and disciplinary boundarie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7, 485-494.
- Goldsmith, E.B. (1983).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1(3), 207-213.
- Leong, S.M. (1989). A citation and analysis of th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March, 15, 498-503.
- Montgomery, J.E. & Ritchey, S.J. (1975). Home Economics research: are we doing all we can? *Journal of Home economics*, 67, 35-39.
- Oliver, B.A. & Mahoney, M.Y. (1991, Spring). The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an empirical examination,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9(3). 22-27